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윤석민·송은범·신승현

불펜으로 쓸까 선발이 좋을까

선동열 감독

윤석민

송은범

신승현

선동열 감독 과감한 기용으로 자신감 심기

SUN이 사용한 마운드 정상화 카드는 과감한 기용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윤석민의 복귀와 트레이드를 통해 막강 불펜의 틀을 만들었다. 윤석민, 송은범, 신승현 등 수준급 자원이 합류했지만 이들의 마운드 공백은 불펜 구성의 변수였다. 확실한 순위 싸움을 위해 선 감독은 적극적인 기용으로 이들의 적응 시간을 앞당겼다.

세 선수의 첫 등판은 모두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또 예상보다 박빙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석민의 첫 등판 상대는 넥센의 이택근. 지난 4일 1점차의 승부가 전개되던 4회말 2사 만루가 윤석민에게 주어진 첫 임무였다.

실투 하나에도 승부가 뒤집힐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윤석민은 초구에 149㎞를 뿌렸고, 3개의 공으로 이택근을 2루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

시간이 필요할 것 이라는 우려와 달리 윤석민은 첫 등판에서 바로 에이스의 부활을 알리며 KIA 마운드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SK에서 타이거즈 맨으로 변신한 신승현과 송은범도 준비기간을 생략한 빠른 기용으로 홈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신승현이 지난 7일 먼저 KIA 데뷔전을 치렀다. 0-2로 뒤지던 7회초 2사 1·3루, 신승현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2군에서 4월13일 0.1이닝, 5월3일 1.1이닝을 던진 게 최근 기록이었기에 감이 숙제였다. 신승현은 황재균의 첫 승부에서 1루수 실책이 나오며 1점을 주기는 했지만 2.1이닝 1피안타 2볼넷 3탈삼진의 기대 이상의 신고식을 치렀다. 직구는 145㎞까지 나왔고 과감한 승부로 선 감독의 마음을 잡으면서 필승조를 예약했다.

송은범도 0-3으로 뒤지던 지난 8일 7회 2사 1·3루에서 KIA 선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올 시즌 1군에서의 최근 등판은 4월14일, 송은범은 오른손 중지 손톱이 부상으로 2군에서 1군 복귀를 준비했었다.

송은범은 공백에도 불구하고 첫 타자 신보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149㎞의 직구와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1.1이닝 1볼넷 3탈삼진의 기록을 남겼다.

선 감독은 "편한 상황에서 던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경력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등판을 시켰다"며 "한번 정도만 더 등판시키면 신승현도 승리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 선수의 경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속성과정으로 1군 적응을 이끌고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선 감독의 과감한 기용에서 세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면서 KIA 불펜은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윤석민까지 불펜에 대기하면서 이번 주말 삼성과의 중간 싸움이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펜에 대기시킨 은범이와 석민이 이겨야 쓰지"

덕아웃 말말말

▲이기고 있어야 쓰지=선동열 감독, 송은범과 함께 윤석민을 불펜에 대기 시켜놨는데 팀이 지면서 기용을 못 했다며.

▲기분은 돌아왔는데 야구가 안 돌아오네=밝은 표정으로 덕아웃을 누비던 김원섭, 초반 극심한 부진으로 마음 고생을 했었다며.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으셨네=반백의 한대화 2군 총괄코치를 본 이순철 수석코치.

▲방망이에 구멍났어?=이순철 수석코치, 타격훈련을 하던 이준호를 향해. 이준호는 1군 등록 후 2경기에서 안타 없이 3개의 삼진을 기록했다.

▲촌스럽게 불 켰다고 그래?=한대화 총괄코치, 이 수석코치를 거들며 이준호에게. 2군 경기는 낮 1시에 시작돼서 야간 경기가 없다.

▲(손)아섭이 옆으로 쳐라=이효봉 해설위원, 지나가던 안치홍을 보고. 8일 경기에서 안치홍의 잘 맞은 타구가 롯데 외야수 손아섭의 호수비에 플라이가 됐다.

▲먹는 것에 비하면 부족해=정회열 코치가 나지완에게, 타율(0.344)에 비해 타점(22)이 적은 것 아니냐면서. 나지완은 홈런(2)이 적게 나와서 그런다며 아쉬워했다.

▲(류)현진이가 심심하니까 빨리 오래요=류현진과 연락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민이.

▲너를 위한 건 아니잖아=윤석민의 얘기를 들은 정회열 코치, 정말 미국에 갈 거냐면서.

▲현수막 걸려고 그랬잖아요=이범호, 선수협회장인 서재응이 동대표도 맡고 있다며 축하 현수막을 걸려 했다고. 서재응과 이범호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들어올 거냐고 묻던데=박기남, 절친 김상현이 트레이드되면서 내어놓은 아파트 매매가 어렵다며 전세로 들어올 거냐고 묻더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퇴출 레슬링 한줄기 희망의 빛

마지막 정식종목 한자리 레슬링·가라테·스쿼시 3파전 전망

2020년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정식종목 한 자리를 두고 레슬링과 가라테, 스쿼시가 경합을 벌이리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올림픽 뉴스 전문 인터넷 매체인 '어라운드더링스(ATR)'는 이달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종목 후보를 이들 세 종목으로 좁힐 예정이라고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IOC는 올해 2월 스위스 로잔 집행위 회의에서 2020년 대회의 핵심종목(Core Sports) 25개를 선정했다. 그러나 레슬링은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우슈, 롤러스포츠,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웨이크보드 등 7개 후보 종목과 함께 2020년 올림픽의 마지막 1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

당 한 차례 집행위의 '퇴짜'를 맞은 레슬링의 회생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양 종목의 기구 통합 등으로 혁신의 움직임을 보인 야구·소프트볼이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ATR은 최근 버드 셀리그 메이저리그(MLB) 커미셔너가 올림픽 기간에 시즌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집행위의 평가가 낮아졌다고 전했다.

핵심 종목 선정 당시처럼 집행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3개 후보 종목으로만 압축한 다음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레슬링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모양새다.

아무래도 유럽세가 강한 집행위보다는 전체 회원국이 모이는 총회에서 종목의 상징성을 부각한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ATR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 레슬링연맹(FILA)이 집행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핵심종목 탈락 이후 얼마나 자구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4승 도전

12일 10시 마이애미전 등판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26·사진)이 내셔널리그 최하위 팀을 제물로 4승 사냥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12일 오전 10시 1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 선발로 맞붙을 투수는 1승 2패, 평균자책점 1.81을 기록한 우완 케빈 슬로위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마이애미는 10승 25패, 승률 0.286으로 리그 최하위인 약체다. 선수단 총 연봉도 다저스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 왕중왕전 효천고 오늘 첫 경기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을 향한 도전이 10일 시작된다.

순천 효천고가 10일 오후 4시 창원 마산구장에서 개막하는 제6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충훈고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일고는 11일 오후 12시30분 장충고와 대결을 벌인다. 또 다른 전라권 대표 동성고와 군산상고는 2주차 경기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동성고는 17일 오전 10시 배재고와 16강을 다투고, 군산상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성남고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한다.

이번 왕중왕전은 주말리그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30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벌이며 오는 6월9일 최후의 승자가 가려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광주기자단 선정 4월 MVP

KIA 양현종이 광주기자단이 선정하는 월간 MVP를 수상했다.

양현종은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8일 광주 롯데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양현종은 4월 한 달 5경기에 등판해 30.2이닝 동안 1.17의 방어율로 4승 무패를 기록했다.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양현종은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